



## 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으로

탄산음료 학교서 못판다... 비만·총  
치 원인 수련시설 내 자판기도 금지  
앞으로 전국 225개 청소년수련시설  
과 각종 청소년단체 행사에서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를 팔거나 제공  
할 수 없게 된다. 또 학교내에서 탄산  
음료 판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청소년 비만 등 건강  
을 위협하는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들  
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  
를 제한해 줄 것을 교육부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수련시설의 음료용 자판기에서 탄  
산음료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청소년위가 전국 160개 중·고등 학교를 표본으로  
탄산음료 판매실태를 분석한 결과 90.6%에 달하는  
145개 학교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탄산음료를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당 하루 평균 판매량  
인 31.3캔 중 21.3캔이 자판기를 통해 판매돼 주변에  
설치된 자동판매기가 탄산음료 섭취를 손쉽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시설 32개를 분석한  
결과 하루 7204명이 이용했으며 하루 평균 1578캔  
이 판매됐고 이 중 1140캔이 자판기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버려지는 '대기전력' 1W이하로, 2010년 의무화  
자판기도 대상품목에 포함

정부는 전자제품에서 버려지는 대기전력을 1와트  
(W)이하로 낮추기 위해 2008년부터 27개 품목에 대  
해 의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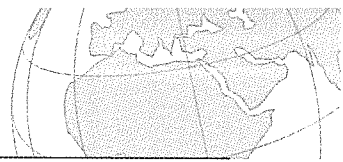
또 2010년부터 '대기전력 1W이하' 기준에 미달한 제  
품은 담배 경고문구처럼 '이 제품은 정부의 대기전력  
저감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별로 달랐던 대  
기전력 측정방법이 최근 통일됨에 따라 이 국제표준  
규격을 KS규격으로 제정했고, 이에 맞춰 대기전력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기준이 강화되는 품목은 컴퓨터(2~5W이  
하) 모니터(1~2W) 프린터(1W) 텔레비전(1~3W)  
오디오 비디오 전자레인지(1W) 등 11개 품목이다.  
2단계로 적용되는 2008~2009년 의무 품목은 전기  
세탁기, 드럼세탁기, 식기건조기, 게임기, 외장형 고  
속 모뎀, 자동판매기, 홈시어터 등 16개 품목이다.  
현재 가구당 대기전력 소비량은 평균적으로 텔레비  
전 4.33W, 비디오 5.45W, 오디오 8.61W, 셋톱박스  
7.85W, 컴퓨터 3.26W, 프린터 3.07W, 전자레인지  
2.77W 등이다.

대기전력은 가정내 총 전력사용량의 10%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5000억원 상당  
의 전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KRAA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시험 실시  
한국냉동공조기기인증센터(KRAAC)가 고효율에너



지기자재 지정시험기관으로서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자동판매기 인증시험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시험기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품목은 조달청 우선구매 품목으로 선정되며 저리의 자금용자, 공공건물 및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증축 때 우선 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 에너지공단 고효율기기 설치장려금 지원

#### "고효율기기 설치로 돈 받아주세요"

에너지관리공단 부산·울산지사(지사장 류기준)는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의 초기시장 창출과 보급 확산을 위해 지난 2월 16일부터 고효율기기 소비자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설치 장려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효율기기 설치 장려금은 에너지관리공단이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한 조명기기·전동기·인버터·자동판매기·펌프 등을 설치한 소비자 및 판매자에 대해 지급되며, 특히 아파트나 산업체, 상가, 주택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제한은 없다.

세부내용을 보면 조명기기의 경우 40W 안정기를 32W 고효율 형광등용 안정기 및 45W 안정기 내장형 램프로 교체 또는 신설하면 개당 지원금이 최소 2,100원에서 최대 6,300원까지 무상 지원된다.

장려금의 신청 및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mco.or.kr/rebate)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문의는 에너지관리공단 부산·울산지사(051-503-7740~1)로 하면 된다.

#### "자판기도 포함된 행정도시 유비쿼터스"

충남 연기·공주에 들어설 행정중심도시에선 커피를 뽑은 자판기 앞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다. 건물과 거리 곳곳에 음료수 자판기와 컴퓨터를 하나의 기계에 통합한 '스마트 머신'이 설치되기 때문이다. 또 도로 바닥엔 센서가 깔려 교통 상황과 노면 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청이 지난 1월 24일 "행정도시 전체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만들겠다"며 밝힌 행정도시의 미래상이다.

정부는 우선 행정도시 도로 밑에 첨단 센서를 깔아 도로 운영을 첨단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허용 중량을 넘은 차량이 교량을 통과하려고 움직이면 센서가 이를 인식해 운전자에게 다리를 통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행정도시에 들어서는 '통합정보센터'에서 이를 총괄 조정한다. 또 가정과 병원 등도 네트워크로 연결, 의사가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간단한 처방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 최병남 GIS센터장은 "도시 전체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기초로 오는 7월 행정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런 구상을 뒷받침할 돈과 기술력이다. 2212만평에 이르는 행정도시 전체를 유비쿼터스 도시로 만들 경우 건설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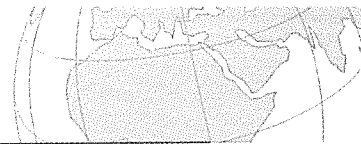
행정도시시는 2007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완공된다. 정부 부처 이전은 2011년부터 시작된다.

#### 음료수 자판기가 똑똑해진다

일본 코카콜라사에 출장을 간 회사원 김 모씨(36)는 그곳의 자동판매기가 신기하기만 했다.

음료수를 휴대폰 전자결제를 통해 구입하는 것까지는 한국에서도 가끔 목격할 장면이었지만 음료수가 몇개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데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자동판매기가 어디 있는지 까지 파악할 수 있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이처럼 생활 속의 임베디드(내장형) 시스템은 우리



생활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오라클(Oracle)의 솔루션이 적용되고 있다.

김씨가 경험한 자동판매기는 현재 원활한 재고관리와 다른 자판기 위치추적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할인행사 홍보와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의 즉각적인 확인까지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은 한국 음료회사와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크 바튼 오라클 아태지역 임베디드사업본부 부사장은 한국을 "신기술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며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서 임베디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사람들의 가장 일상적인 생활에서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라클은 임베디드 사업을 위한 전담 사업 조직을 신설하고 오라클의 다양한 제품군 중 'Oracle Lite'와 'Oracle Times Ten'으로 임베디드 비즈니스 분야를 공략할 계획이다. 바튼 부사장은 한국오라클이 오는 4월에 한국R&D 센터를 개설하면 그곳에서 연구할 다양한 분야 중 임베디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 [괴산군청] 장학금이 나오는 커피자판기

문광면 4-H 후원회(회장 유병열48세) 회원은 2006. 3. 15일 지역학생 5명에게 각각 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 기금은 문광면사무소에 설치한 오래된 음료수 자판기가 그 주인공이다.

매년 자판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모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금은 매년 변동 될 수밖에 없으나, 기계가 온정을 넘치게 하는 장학금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에 모두들 긍금증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자판기 수익금으로 장학기금 조성을 시작 한 것은 1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부터이다.

그 당시만 해도 농촌에는 4-H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자격을 넘어선 4-H 회원들은 4-H운영회를 결성하여 지역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젊음을 불사를 때였었다.

문광 4-H후원회는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회비를 모아, 자판기를 구입하였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지금까지 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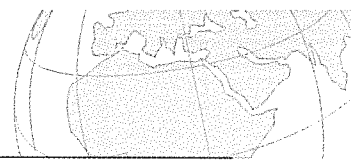
### 사기대출' 혐의, 주진관 前한국식품자동판매기업 중앙회장 무죄확정

대법원 3부는 30일 자판기 임대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주진관 한국식품자동판매기업중앙회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파기환송심과 다르지 않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상고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명의 차용방식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증권 발급 당시 자판기가 미설치된 점을 알면서도 주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챙기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주진관씨는 2003년 7월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해 받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89억1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국을 돌며 자판기만 227회나 털었던 30대가 결국 경찰에 들미.

지난 2월 24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7)씨는 지난해 15일 새벽 5시2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P서점 앞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잠금 장치를 드라이버로 부순 뒤, 안에 있던 현금 55만원을 빼내는 등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전국을 돌며 227개의 자판기에서 1억여원을 훔쳤다 한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최모(37)씨도 전국에 지명수배했는데, 이씨는 경찰에서 "마땅한 직장도 없고, 거주할 곳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고 한다.

### 성인용품 자판기 다단계업체 적발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인용품자판기를 사서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모 다단계 업체 전무 41살 명 모씨를 구속하고 36살 장 모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명씨 등은 지난 12월, 44살 정 모 씨에게 자판기 임대, 판매 수익을 올려준다며 4백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천 6백여 명에게 투자자금 명목으로 6백여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명 씨 등이 챙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하고, 도주한 이 회사 대표 41살 김 모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 자판기서 담배 사려면 日 "성인카드 넣으세요"

일본이 미성년자의 흡연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모든 담배자동판매기를 '나이를 알아보는' 새 기종으로 바꾼다.

일본담배협회는 전국 62만대의 담배 자판기를 2008년 한 해 동안 '담배카드'를 읽을 수 있는 새 자판기로 교체하겠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이 해 3월 미야자키와 가고시마현에서 시작, 5월까지

21개현에서 새 자판기를 들여 놓고 이후 2개월간 전국에서 교체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새 담배자판기를 이용하려면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성인 인증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자판기가 센서를 통해 카드를 판독한다.

담배협회는 법적으로 흡연이 가능한 만 20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내년 말부터 카드 발급을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흡연자들은 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들도 함께 보내야 한다.

### 中대학가에 콘돔자판기

베이징시, 에이즈 막으려 의무화

중국 수도 베이징의 모든 대학은 학생 기숙사 입구에 콘돔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호텔 객실과 대형 공사장도 콘돔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룬살롱 등 유흥·오락업소는 손님들에게 반드시 콘돔을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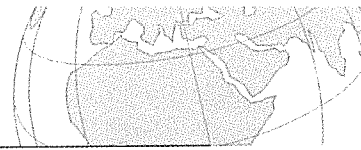
베이징 시 정부는 2005년 679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 1년 사이 35%가 증가하자 이런 내용의 강력한 에이즈 예방책을 마련했다고 베이징청년보가 18일 보도했다.

이 예방책은 또 대학과 중등직업학교뿐 아니라 중학생 6시간, 고등학생은 4시간의 에이즈 예방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다. 중국 위생부는 지난해 말까지 에이즈 감염자가 보균자를 포함해 약 65만명, 에이즈 환자는 7만5000여명,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약 2만5000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泰보건부, 대학 구내 콘돔자판기 설치 검토

태국 보건부는 젊은이들 사이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교 안에 콘돔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넛 차루솨뻏 태국 보건장관은 젊은이들의 에이즈



신규 감염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과 관련,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꽤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고 태국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현재 태국내 에이즈 환자 37만4천여명 가운데 15~24세가 3만명 안팎에 이른다고 태국 언론은 전했다. 피넛 보건장관은 젊은이들의 에이즈 감염 억제 방안의 하나로 대학교 구내에 콘돔 자판기를 설치토록 하는 한편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학생들의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 및 병원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의 섹스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섹스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태국 보건부는 지난해 1만8천명을 웃돈 에이즈 신규 감염자수를 올리는 1만6천명선으로, 내후년에는 다시 7천500명선으로 대폭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태국 정부는 몇년 전에도 대학교 구내 콘돔 자판기 설치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무분별한 섹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반대 여론도 많아 유아땀었다.

### 英 미용실..성인용품 자판기 설치

포테이토칩이나 커피뿐만 아니라 성인용품도 자동판매기로 구매한다.

영국 런던과 맨체스터 지역의 미용실이나 바, 나이트 클럽에서 성인용품 자동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일간지 가디언이 지난 3월 6일 보도했다.

미니 바이브레이터와 식용 윤활제 등 다양한 제품들이 담배갑 2~3배 크기의 박스에 담겨 5파운드(약 8500원) 가격대에 판매된다고 한다.

고객의 사생활을 고려해 주로 화장실에 설치돼 있지만 일부 미용실의 경우 매장 한 중간에 설치되기도 한다. 판매기를 최초로 매장 가운데 설치한 런던의 한 주점

관계자는 "일부 손님들은 이곳에 들른 김에 사기도 하고 성인용품샵에 가기 주저했던 고객들의 경우 일부로 제품을 사기 위해 가게에 들르기도 한다"면서 판매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성인용품 판매업체 타부부(Tabooboo)社は 판매기 설치를 영국 전역으로 넓힐 계획이며 이미 미국과 이탈리아에 수출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회사측은 "수많은 제품들이 자동판매기로 판매되고 있어 성인용품도 안될 것 없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소비자들이 카운터에서 직접 성인용품을 사는걸 꺼려한다는 점에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천주교 관계자는 "섹스는 게임이 아니다"며 성인용품 자동판매기에 강한 반발을 표시했다고.

### 미국, 유괴방지를 위한 엠버경보에 자판기도 이용

"피랍자 마리아 파월. 7세 흑인 여아. 납치 용의자 30세 가랑 백인 남자. 파란색 포드 토러스를 타고 버지니아 바닷가 쪽으로..." 미국 라디오와 TV는 가끔씩 이런 방송을 내보낸다. 도로 전광판이나 자동판매기에 달린 메시지판에도 그런 글귀가 뜬다. 어린이 유괴사건이 터지면 처음 1시간 동안은 20분마다, 2시간까지는 30분마다, 8시간까지는 60분마다 반복된다. 2004년부터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도 보낸다. '엠버경보'다.

1996년 텍사스에서 아홉 살 여자어린이 엠버 해거먼이 유괴돼 무참히 살해됐다. 충격 속에 지역 언론과 경찰이 합심해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녀 엠버의 이름을 붙였다. 2004년 부시 대통령은 엠버경보를 전국에 확대하는 '어린이보호법'에 서명했다. 서명식엔 엠버의 어머니가 참석해 눈물을 흘렸다. 지난 1월 곤살레스 법무장관은 10년 전 희생된 엠버 해거먼을 기리며 "지금까지 241명의 어린이가 엠버경보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